

천초를 거두리까, 소리를 잡으리까

[제주잠녀] 110. <2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81) 제주시 조천어촌계

등록 : 2008년 04월 15일 (화) 09:46:23
최종수정 : 2008년 04월 15일 (화) 09:46:23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 조천양식장

멀리 사람들의 행색이 의아하다. 제 몸보다 큰 망사리(해산물을 채취하여 담아 넣는 그물주머니)를 지고 나오는 잠녀들의 행렬이다. 조금 전만 해도 들락날락 부산하게 바다 문을 두드리더니 이내 망사리에 조락(오분자기 등의 자잘한 해산물을 따로 보관하는 작은 망사리)까지 얼핏 보기에 묵직해 보인다. 잠녀들의 표정은 그러나 봄빛이 아니다.



▲ 볼럭

△'천초 공장'부러움 뒤로하고

조천 바다를 이웃 어촌계들에서는 '천초 공장'이라고 부른다. 조천어촌계는 지난 2006년만 6만 1770kg의 천초를 수확, 4억6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주변의 부러움이 이해가 된다.

정작 조천 어촌계는 바다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도 도내 어촌계중에는 가장 많은 4만50kg의 천초를 거둬들였다. 천초 소득만 1억64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확량이 줄어든데 비해 수익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폭이 컸다.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거기에 수확량도 갈수록 줄고 있다. 어장 전체가 '천초바다'인 명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안두영 어촌계장(75)은 "바다 특성에 맞춘 어업 정책이 아쉽다"고 운을 뗐다.

엔화 약세와 중국 원초 공세로 제주 천초 수출길이 험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시장에 '홍보'라도 제대로 한다면 사정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말이다.

소라를 기준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정책 역시 이곳 천초 바다에는 득(得)이 아니고 실이다.

안 어촌계장은 "바다에 먹이(해초)가 줄어들다보니 전복이나 소라 종패를 뿌려두면 천초밭으로 물려들기 일수"라며 "투석을 하며 관리를 하며 한때 생산량이 10만kg도 넘었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라고 말했다.

천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소라를 잡아서 판매를 했다가 1년간 지원이 무산되는 고초도 겪었다.

안 어촌계장은 "소라는 법적으로 물량을 제한하면서 돈이 되는 천초 등 해조류 관리는 바다에 맡기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자율관리어업도 잘되는 곳은 잘된다고 하지만 이곳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어촌계원 한 집당 연평균 1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던 2006년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천초 작업으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천초 여행' 전통을 이어오는 조천 바다다.



△물 농사·바다 농사 역척스런 사람들

이곳 상시 잠녀는 42명이다. 4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역시나 60·70대가 주축을 이룬다. 대부분 감굴 과수원을 겸업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바다에 나선다.

천초 작업을 하는 한 달간은 공동으로, 나머지는 개인으로 작업을 하지만 수확량 모두 계통 출하한다.

소라도 TAC물량이 7000kg으로 적지 않은 편, 그나마 1만kg던 것이 줄었다. 톳도 2006년과 2007년 모두 5000kg가 넘었지만 늘어나지는 않았다.

전복과 오분작 종패를 한 세배와 알개 공동양식장은 1년 다섯 번 정도만 작업을 한다.

망사리 가득 성계를 하고

나온 잠녀들은 채 몸이 풀리기도 전에 작업에 몰두한다. 성계가 많이 나는 만큼 근심도 커진다. 해적생물인 성계가 많아지는 만큼 전복이나 소라 수확량은 줄어든다. 성계는 또 상품화를 위해 작업하는 것만 꼬박 반나절 걸린다. 공을 들인 만큼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많지 않다.

어촌계 수익 사업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역시 자로 쟀 듯 꼭 맞춰진 정책이 걸림돌이 됐다.

안 어촌계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어판장'을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수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고로 두기가 그래서 가공공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나름 바다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벌써 몇 십년 어촌계 살림을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오래된 장부에 쓰인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이곳 제주의 바다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신흥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